

- 12월 24일
 -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 타결...㎡당 0.64달러
 - 방역당국, 24일 0시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상황이 종료됐다고 선언...첫 환자 발생 이후 218일 만에
 -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운전기사 폭행 물의 몽고식품 김민식 명예회장 사퇴
- 12월 25일
 - 서울역 고가도로 성탄절 마지막 개방...26일 철거 시작
 -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보행공원 조성
 - 북면괴한 대전서 승용차 운전자 총격 후 도주...28일 용의자, 경찰의 추격을 받다 총기로 자살
- 12월 26일
 - 무소속 안철수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해
 - 여자 프로 복싱 세계챔피언 홍서연, WBA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세계타이틀 매치 3차 방어 성공...중국 리우지안을 맞아 TKO 승
- 12월 28일
 - 한·일,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윤병세 외교부장관·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후 합의문 발표
 - 일본정부의 책임통감·아베 ‘총리자격’ 사퇴·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에 일본 측 10억 엔 출연
 - 법적 책임과 소녀상 이전을 놓고 견해차
 -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결정
 -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제출
 - 이마트, 베트남 호찌민시 고방 지역에 ‘베트남 1호점’ 오픈
- 12월 29일
 -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소방관 응시 최저연령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춰...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아
 - ‘북한 지뢰 도발 부상’ 하재현 하사,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 마치고 퇴원...“국민 응원에 감사”
 - ‘문화창조벤처단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옛 한국관광공사 건물에 개소...문화 콘텐츠 사업화 지원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직 사의 표명
 - 국내연구진,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분산기술 개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신기능재료표준센터 추진철 박사팀, 상업화를 위해 분산전문기업 (주)그린솔 창업
 - 김구라, ‘2015 MBC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생애 첫 대상
 - 북한의 대남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교통사고로 사망...향년 73세
- 12월 30일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한·일 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해
 - 정부,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사망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 표명
 - 부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남성 1명이 흉기를 들고 난입해 직원 1명을 잡고 인질극 벌여...1시간여 만에

- 검거
- 호남향우회 임원진 30여 명, 더불어민주당 집단탈당
- 검찰, 농협비리 수사 발표...비리 혐의로 전·현직 농협 간부 6명 등 총 25명 기소
- 화천 비무장지대 내에서 매복작전 중이던 병사 1명 총기사고로 숨져...군 당국 조사
- 2009년 법정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차사태 6년 만에 마침표...해고자 복직 합의·손배 가입류 취하
- 유재석·김병만, 2015 SBS 연예대상 공동 수상
- 북한, 신의주에 ‘연안관광특구’ 오픈...중국인 관광객 하루 동안 무어권·무비자로 면세 쇼핑·관광 가능
- 12월 31일
 - 박근혜 대통령,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 “노동 등 4대 개혁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기반 마련”이라고 말해
 - 국산 전투함 ‘서울함·김천함’, 30여 년간 임무 끝내고 퇴역...현역에서 은퇴한 함정은 모두 6척으로 늘어

국제 일지

1월

- 1월 1일
 - 리투아니아, 자국통화인 리타스 대신 유로화 사용 시작...19번째 유로존 국가
 - 지우마 호세프(67,여) 브라질 대통령 취임...27기 정부 출범
 - 중국 상하이 신년맞이 행사장에서 가짜 돈 뿌려지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36명 압사·47명 부상
- 1월 2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 발동
 -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대형 화재...소방관 5명 사망·14명 부상
- 1월 4일
 - 영국 해역에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호그 오사카’호 좌초...승무원 35명 모두 구조
- 1월 5일
 - 파나소닉,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4K UHD 블루레이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4K UHD(3840×2160)는 풀HD보다 화질이 4배 뛰어나
 - 미국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아시아 유물 및 작품 4만여 점 웹에 공개...한 국작품 781점
- 1월 6일
 - 쿠바, 미국인 정치범 추가 석방...관계 정상화 가속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5.6의 지진 발생
 -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대형 거래소인 비트스탬프가 해킹으로 1만9천 비트코인(약 55억원)을 도둑맞아 거래 중단
 - 도요타자동차, 수십 년간 축적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특허 무료 공개...기술 독점보단 보급이 우선
- 1월 7일
 - ‘이슬람 풍자만평’ 프랑스 주간지 샤흐리 에브도 총격 테러로 17명 사망...용의자는 예멘 알카에다 쿠아치 형제
 - 9일 용

의자 공항 근처 공장으로 도주해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돼

■ 1월 8일

• 파리 유대교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으로 4명 사망·4명 중상...인질범 아메디 콜리발리도 사살 • 미국 고속도로안전교통국(NHTSA), 일본의 혼다자동차에 자동차업체 사상 최고액인 7천만 달러(약 767억원)의 벌금 부과...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사망 및 부상·보증 요구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 물어

■ 1월 9일

• 스리랑카 정권교체...마이트리팔라 시리세네(63) 전 보건부장관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 • 일본 정부, 고등학교 교과서 3종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 삭제 허용

■ 1월 11일

•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규탄' 행진...영국·독일 등 34개국 정상, 시민과 함께 행진 • 크로아티아에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야권 단일 후보인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46)가 현직 대통령 놀러

■ 1월 12일

• 모잠비크 테테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독성이 있는 약어 담즙이 함유된 맥주를 마시고 69명 사망

■ 1월 13일

• 세계은행, 2015년 글로벌 실질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개도국은 4.8% 성장 전망 • 프란치스코 교황, 일주일 일정으로 스리랑카·필리핀 순방에 나서 •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 테러리즘과 전쟁 선포 • '센카쿠 갈등' 중·일, 해상연락메커니즘 구축 합의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년이 '러시아 스파이'를 총살하는 영상 공개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레알 마드리드),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4년 시상식에서 최고 선수상에 해당하는 FIFA-발롱도르(Ballon d'Or) 상 2년 연속 수상

■ 1월 14일

• 프란치스코 교황, 스리랑카에서 첫 가톨릭 성인 시성... '화합' 강조

■ 1월 15일

• 스위스 중앙은행, 3년간 지켜온 최저 환율제를 폐지하고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발표...국제 금융시장 요동쳐 • 벨기에 경찰, 시리아에서 귀국한 뒤 테러를 준비 중이던 이슬람 극단주의자 2명을 사살하고 1명 체포 • 태국에서 강제 성매매에 동원됐던 라오스 여성 72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

■ 1월 17일

• 한국인 김 모(18)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담 보도

■ 1월 18일

•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마닐라에서 최대 70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현지 미사에서 소외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호소 • 일본 제야당 민주당의 새 대표로 오카다 가쓰야(61·岡田克也) 전 외무상(중의원 9선) 선출

■ 1월 19일

• 이슬람 자치공화국인 러시아 체첸공화국에서 무함마드 만평 규탄 시위...100만 명 참여 • 중국, 공무원 봉급인상 결정... "12년 만에 처음"

■ 1월 20일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은 채 72시간 내에 2억 달러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동영상 공개 • 예멘 반군, 대통령궁 장악·관저 공격 '쿠데타 위기'...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예멘 상황 우려해 안보리 긴급회의 열어 •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

■ 1월 21일

• 일본·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개최... "미사일 기술 등 협력" • 미국·쿠바, 아바나서 국교정상화 협상 공식 개시...제이콥슨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 쿠바 방문 • 스위스·중국, 위안화 결제 협정 합의 • 세계경제포럼(WEF)의 제45차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 '새로운 글로벌 상황' 주제 •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 등 정·재계 인사 참여

■ 1월 22일

• 유럽중앙은행(ECB), 3월부터 최소한 내년 9월까지 국제 매입 등을 통해 매월 600억 유로씩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면적 양적완화 실시 •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19~20일 이어진 시아파 반군 후티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권력 분점 등 9개 사항에 합의...사실상 쿠데타 •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3기 정부 출범 •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체장 이식수술 성공...소아형 당뇨병 환자인 4세 남자 어린이에게 인공체장 부착

■ 1월 23일

•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91세를 일기로 타계...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제가 왕위 승계 • 태국 의회,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업무 방기를 이유로 탄핵

■ 1월 25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우리놈 농축 활동을 포함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우려한다"고 밝혀 • 에드가 룡구(58) 제6대 잠비아 대통령 취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청년체육부 장관·리비아 외무차관, 무장괴한에 피랍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네(42) 참수...남은 인질은 도우러 간 언론인 고토 겐지(47)

■ 1월 26일

• 그리스 총선거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압승 • 국제신용평가사 S&P,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BB+'로 강등

■ 1월 27일

• 뉴욕·뉴저지 등 미국 동북부 5개주, 폭설로 비상사태 선포...항공기 6천편 운항취소·휴교·야간운전금지·대중교통 단축

■ 1월 29일

•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연장 • 중국·프랑스, 양국 총리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및 항공·전력·환경보호·금융 분야 등 총 11개 협정에 서명

■ 2월 ■

■ 2월 1일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참수 영상 공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테러리스트 절대 용서 안 해…IS대처 지원 확충” •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레바논 순례자 탑승 버스 폭탄 테러로 최소 9명 사망 • 이라크 위성방송 알자지라의 영어방송 기자인 호주 출신의 피터 그레스테(50), 이집트에 구금된 지 400일 만에 석방 • 홍콩서 시민 수천 명이 ‘정치적 제한 없는 행정장관(행정수반)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거리행진 재개

■ 2월 2일

• 미국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시카고는 ‘눈 폭풍 경보’ 발령으로 항공기 1천400여 편 운항 취소 •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 골프 세계 랭킹에서 0.03점 차로 박인비를 제치고 역대 최연소 1위 등극

■ 2월 3일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난해 12월 생포한 요르단 공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 화형 영상 공개…요르단군, 복수 맹세

■ 2월 4일

• 요르단 정부, IS의 요르단 조종사 처형에 대한 보복으로 IS가 석방을 요구한 여성 테러범 사지다 알리사위에 대해 사형 집행…알카에다 간부 지아드 알카르볼리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 • 대만 푸싱(復興)항공 국내선 여객기, 타이베이 쑹산공항에서 이륙 직후 인근 하천으로 추락…43명 사망

■ 2월 5일

• 요르단, 자국 조종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보복 공습…미군도 정찰과 첩보 지원 • 시리아 정부군, 수도 다마스쿠스를 포격한 반군에 대해 보복 공습 감행…66명 사망 •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2014년 경제성장률 최저치(7.4%) 기록에 2년 9개월 만에 단행 • 미국 하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킹 제재 포함 •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아베 과거사 왜곡 반대 집단성명 주도

■ 2월 6일

• 스위스 국방부, 북한군 장교들이 제네바의 안보정책센터에서 교육받도록 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 2월 8일

• 이집트 카이로 동북부의 축구장에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축구팬들과 경찰 충돌로 25명 사망·20여 명 부상 • 칠레 안데스 산맥 추락 비행기 잔해와 희생자들의 유골 54년 만에 발견 •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대회서 우승

■ 2월 9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모색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집트 방문 •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스톡옵션 거래 시작 • 미국 연방대법원, 앨라

배마주(州)에서 동성결혼 허용…미국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 보코하람, 아프리카 카메룬 북부 코차에서 30여 명의 민간인 납치

■ 2월 10일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백인 남성이 무슬림 대학생 3명 사살 • 니제르 정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은 디파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여성 인질 케일라 진 물러(26) 사망 확인…4번째 미국인 인질 희생 • 팔레스타인, 스웨덴에 서유럽 첫 대사관 개설 • 애플 시가총액 7천억 달러 돌파…세계 증시사상 최초

■ 2월 11일

•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시내 독립궁전에서 회동…17시간이 넘는 밤샘 회의 끝에 15일 0시부터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S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력 사용 권한 승인안’을 연방의회에 제출 •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인 스페이스 X,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우주 기상관측위성(DSCOVR)을 탑재한 팰컨 9 로켓 발사 성공 •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 발견

■ 2월 12일

• EU 정상회의, 테러방지 공조 합의…러시아 추가제재 이행 • 미국 법원, 6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60년 선고

■ 2월 14일

• 미국 플로리다주 오코이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모인 청소년 900여 명이 극장과 편의점을 점거한 채 총을 쏘고 물건을 훔치는 등 난동 부려

■ 2월 15일

• IS, 이집트인 콥트교도 인질 2명 참수 영상 공개 • 유엔 안보리, 예멘 정부를 전복하고 실권을 쥔 시아파 반군 후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발효…대부분 전선에서 교전 중단 • 덴마크 코펜하겐 도심에서 세 차례 총격 사건 발생…용의자 1명 포함 3명 사망·5명 부상 •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1만5천여 명의 시민이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벌여 • 지중해 이탈리아 람페두사 부근서 난민 2천 명 구조 • 콜린다 그라바르 카타로비치, 크로아티아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

■ 2월 16일

• 이집트군, 리비아 내 IS 거점 공습…“콥트교도 참수에 보복” • 중국 신장서 자살 폭탄테러…경찰 최소 8명 사망

■ 2월 17일

•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 발생…해일 관측

■ 2월 21일

• 터키, IS 사태 이후 시리아 북부에 지상군 첫 투입…IS에 포위당한 시리아 내 터키 영토 ‘술레이만 샤 묘지’를 소개(疏開)하기 위해

■ 2월 22일

• 미얀마 북부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코캉 지역에서 2주일째 계속되는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130여 명 사망 • 방글라데시 파드마강에서 여객선 침몰…69명 사망 •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할리스코 주에서 규모 6.6의 지진 발생...쓰나미 징후 없어
 • 이탈리아 나폴리 피아누리 지역의 도로 한 가운데에 폭 10m 이상의 거대한 싱크홀 발생...인명 피해 없었지만 주민 대피
 • 제87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의 영화 '버드맨'이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차지하며 4관왕에 올라

■ 2월 23일

• 호주 연방의회,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 첫 채택
 • 말레이시아 여성 7명, 시리아 이슬람국가(IS)에 합류
 • 홍콩에서 H7N9형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 감염 환자 또 발생...“독감과 결합 가능”
 • 스페인 마드리드 동남쪽서 규모 5.4의 지진 발생

■ 2월 24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거부권 행사...공화당과 갈등 고조
 • 미국 연방수사국(FBI),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 확인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벤투라 카운티 옥스나드 시에서 트럭 열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객차 탈선...승객 28명 부상
 • 체코 동남부 도시 우헤르스키 브로트의 한 식당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총기난사...9명 사망
 •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버스터미널 두 곳을 겨냥한 폭탄 테러 발생...최소 27명 사망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근교에서 폭탄이 잇따라 터져 40명 이상 사망·96명 부상
 • 영국 10대 여학생 3명,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기 위해 터키 떠나 시리아 입국

■ 2월 26일

• 미국 수도 워싱턴D.C., 오락용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 중국, 김치에 적용했던 까다로운 위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한국김치 수출길 열릴 듯
 • 영국 왕위 계승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 첫 일본 방문
 • 세계 최고령 현역 주식 투자자로 알려진 '칸 브라더스 그룹'의 어빙 칸 회장 109세로 사망

■ 2월 27일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보리스 넴초프(55), 크렘린궁 인근서 총격 피살

■ 3월 ■

■ 3월 1일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넴초프 피살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열려

■ 3월 2일

•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남북, 北 인권 놓고 격돌
 •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타결...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연합(EU)에 가스 공급
 •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경찰 첩자' 남성 2명 참수 영상 공개...IS 노방
 • 영국 왕위 계승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왕실인사로는 29년 만에 중국 방문

■ 3월 3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납수단 제재 결의안 채택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제재 1년 더

연장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미·이란 간 핵협상으로 이란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라며 미국 주도 핵협상 비판
 • 인도네시아, 지난해 말 자바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QZ 8501의 수색 작업 공식 종료
 • 러시아 야권지도자 넴초프 장례식 엄수...푸틴 대통령도 조화 보내
 • 칠레 남부 비아리카 화산 폭발...3천여 명 대피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LG전자의 G3과 애플의 아이폰6을 '최고의 스마트폰' 공동 수상자로 선정

■ 3월 5일

•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 개막...경제성장 7%·국방비 10.1% 증액
 • 할리우드 배우 해리스 포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경비행기 엔진고장 추락 사고로 중상
 • 예멘서 피랍됐던 이란 외교관 2년여 만에 석방
 • 280만 년 전 最古 인류 화석발견...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등 국제공동 연구진, 에티오피아에서 2년 전 발견된 화석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호모(homo)속(屬) 인류의 화석보다 40만 년 앞섰다고 밝혀

■ 3월 6일

• IS, 이라크 북부의 고대 아시리아 도시 님루드 유적 파괴
 • 미국 메릴랜드 주 상원 교육·건강·환경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중국계 의원이 발의해 만장일치 의결
 • 미 항공우주국(NASA)의 소행성 탐사선 '돈'(Dawn)호,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는 가장 큰 소행성 세레스의 궤도에 첫 진입

■ 3월 7일

•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고하람, IS에 충성 맹세
 • IS, 세계유산 이라크 '하트라' 유적지도 파괴
 • 러시아,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살인 용의자로 북캅카스 체첸 출신 2명 체포...구체적 증거 제시 안 해 조작 의혹

■ 3월 9일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7년 만에 일본 방문...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 “과거 정리가 화해를 위한 전제다”라며 일본의 올바른 역사관 주문
 • 미국 조지아 주에서 백인 경관이 쏜 총에 비무장 흑인 사망...희생자가 정신이상자에 사망 당시 나체였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

■ 3월 10일

• 런던 도심 16~17세기 매장터 유골 3천구 발굴 개시...고고학계, 1665년 창궐했던 대역병 비밀 규명 기대감
 •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흑인을 '감동이'(nigger)라고 낮게 본 이 학교 남학생 사교클럽인 시그마 알파 엡실론(SAE) 소속 백인 학생 2명 퇴출
 • 스페인 법원,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해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
 • 구글, '강남스타일' 조회 수 표시한계 넘어 시스템 개편

■ 3월 11일

• 탄자니아에서 버스와 트럭 충돌...40명 사망·23명 부상

■ 3월 12일

• 영국, 주요 서방국 중 처음으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미국 반대 무릅쓰고 가입
 • 미국·쿠바, 16년 만에 직통 전화 재개통
 • '흑인차별 항의' 미국 퍼거슨서 경찰 2명 피격...시위대 해산 무렵 얼굴·어깨 총상
 • 에볼라 사망자 집계 1만 명 돌파...세계보건기구(WHO), 사망자 수 누

계가 1만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미국 항공우주국(NASA),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에 거대한 지하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

■ 3월 13일
 • 초강력 사이클론 '팜', 바누아투 강타...유엔, 24명이 사망하고 3천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혀

■ 3월 15일
 •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정보통신전시회 세빗(CeBIT) 무대에서 얼굴인식 결제시스템 공개

■ 3월 16일
 • 리수용 북한 외무상, 쿠바 방문...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서 양국 우의 강조 • 이집트 법원, 무슬림형제단 전 의장에 사형 선고...국가 전복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 기존보다 100배 빠른 초고속 3D프린터 개발...조지프 데시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화학교수,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테드(TED) 콘퍼런스에서 신기술 공개

■ 3월 17일
 • 페이스북 메시지에 송금 기능 도입...미국 은행이 발행한 비자나 마스터 직불카드가 있어야 하고 이용료는 무료

■ 3월 18일
 • 미국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첫 방문...일본 국민급 대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진권(李進軍·59)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신임 북한주재 대사로 공식 임명...류흥차이는 대외연락부 부부장으로 복귀 • 이스라엘 총선서 보수 리쿠드당 낙승...네타냐후 4선 '예약' • 프랑스 하원,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 가결 •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있는 바르도국립박물관에서 인질극...무장 괴한 두 명이 외국인 관광객을 인질로 잡고 군경과 총격전 벌여 최소 19명 사망

■ 3월 19일
 • 일본과 유럽연합(EU),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새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베트남서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 쌍 몰려

■ 3월 20일
 • 예멘 수도 사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137명 사망

■ 3월 23일
 • '싱가포르 국부' 리관유 전 총리 타계...향년 91세 • 독일 작센 주 드레스덴시(市)에 조성된 시민공원을 '한국광장'(Koreanischer Platz)으로 명명

■ 3월 24일
 • 독일 저면왕스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 프랑스 알프스에 추락해 탑승자 148명 전원 사망...프랑스 검찰 "부조종사가 기장이 화장실 간 사이 조종실 문 잠그고 알프스로 돌진했다"고 밝혀

■ 3월 25일
 • 미군 주도 국제동맹국,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한 이라크 티크리트에 대한 공습 개시...이라크군이 이란군의 참여 속에 진행 중인 티크리트 탈환작전 지원 •

삼성물산이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벌이는 철강단지 항만부두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 발생...구조 당국 "100여 명 매몰 추정, 30여 명 부상" • 일본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 취역...헬기 5대 동시 이착륙 가능

■ 3월 26일
 •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의 수니파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아파 반군 '후티' 공격 개시...전투기 100대 · 지상군 15만 명 급파...이집트도 예멘에 군함 4척 파견

■ 3월 27일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 3월 29일
 •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제1야당 대중운동연합(UMP),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압승...경기 침체에 집권 사회당 대패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시아파 무슬림 남자 8명을 참수하는 동영상 공개 •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여객기 악천후에 급작스런 착륙 도중 활주로에서 이탈...승객 23명 경상

■ 3월 31일
 • 이라크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점령했던 티크리트 탈환 • 터키 테러조직 '혁명민족해방전선(DHKP-C)', 검찰청서 인질극...검사 · 인질범 등 3명 사망 · 인질범, '최루탄 사망 소년' 책임 경찰관 공개 자백 등 요구

4월

■ 4월 1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해킹 공격을 테러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격을 '국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 범행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북한 소니 해킹 비판 • 나이지리아 첫 평화적 정권 교체...쿠데타 일으켰던 부하리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 • 터키군, 시리아 밀입국 시도 영국인 9명 체포 •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일본인 오카와 미사오(여) 할머니, 117세를 일기로 별세

■ 4월 2일
 • 이란 핵협상 타결...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 마련 · 6월 말까지 최종 타결기로 해

■ 4월 3일
 • 케냐 북동부 가리사 대학 캠퍼스에 난입한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자 147명으로 늘어...부상자도 79명 발생 • 중국 검찰, 부패 혐의로 송치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식 기소

■ 4월 6일
 • 일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올해 모든 일본 중학교 지리 · 공민 ·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 수록 ·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쓴 교과서도 3배로 늘어

■ 4월 7일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찰스턴에서 백인경찰이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흑인에게 8발의 총을 쏘 살해...시민 제보 등 영상이 공개돼 파문 · 백인경찰 거짓말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돼

■ 4월 8일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국방 현안 논의 ·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다섯 딸 쌍둥이 출산...세계적으로도 1969년 영국 런던서 출생 이래 46년 만 · 텍사스에 사는 애담과 다니엘레 버스비 부부

■ 4월 10일

·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 225), 15년 만에 장중 20,000선 돌파 · 주일 한국문화원 방화 용의자 체포...39세 일본인 무직 남성

■ 4월 11일

· 미국 · 쿠바, 59년 만에 정상회담...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 · 민주공고에서 아기와 태아 시신 42구 발견...유엔 · EU 긴급조사 요청 · 일본 프로 기사 5명, 컴퓨터와 대결서 첫 단체전 승리

■ 4월 12일

·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2016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미국 오클라호마 주 털사에서 또 백인 경관이 흑인 총격 살해...보디캠 영상공개 ·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 지중해 해상에서 전복...400명 익사

■ 4월 13일

· 노벨문학상(1999년) 수상자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 사망...향년 87세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발표...1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2위 2NET 씨엘

■ 4월 14일

· 미국, 쿠바 테러지원금 33년 만에 해제...국교정상화 박차 · 미국 무인 화물 우주선 '드래건'발사 성공...ISS에 활동 중인 6명의 우주인을 위한 식량과 과학 실험 장비 등 2의 화물 실려

■ 4월 15일

· 유럽연합(EU),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구글을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 · 국영 프랑스 텔레비전 해킹 당해 시청자 연락처 등 1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인 핀란드의 노키아, 프랑스 알카텔루슨트와 전격 합병 발표...휴대폰 실패 노키아, 세계 2위 통신장비회사로 완전 전환

■ 4월 16일

· 미국 주도 연합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정유도시 바이지 집중 공습 · 조지아 주, 미국서 24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 4월 19일

· 리비아 난민선, 지중해에서 침몰...700여 명 사망 · 국내 대형병원의 정보시스템을 적용한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첫 개원...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 '킹 압둘라 어린이 전문 병원'

■ 4월 20일

·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수니파 아랍국 동맹군, 예멘 수도 사

나 부근의 시아파 반군 후티의 무기고를 대규모로 폭격...민간인 사상 속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파키스탄 방문해 양국 잇는 460억 달러(50조원) 규모의 경제회랑 구축하기로 합의...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하고 51개 MOU 체결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지급준비율을 19.5%에서 18.5%로 1%포인트 인하 · 대만 동부 해역과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규모 6.3과 6.8의 지진 각각 발생...일본 쓰나미 주의보 발령 · 에티오피아의 렐리사 데시사, 119회 보스턴마라톤에서 2시간 9분 17초의 비공식 기록으로 남자부 우승...보스턴마라톤 두 번째 우승

■ 4월 21일

· 아베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신 공물만 봉납 · 일본 자기부상 열차, 시속 600km 세계 첫 돌파... '리니어 주오신칸센' · 폴란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조8천억원 규모의 미국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도입 결정

■ 4월 22일

·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 · 아프리카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참석 ·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일본 국회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 미 해군, 무인기(드론) 공중급유 첫 성공 · 일본 닛케이 종가 15년 만에 20,000 돌파 · 칠레 남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칼부코화산, 50년 만에 분화...적색경보 발령

■ 4월 23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전략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 4월 25일

·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강진으로 8천964명 사망

■ 4월 27일

· 미국 · 일본,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 자위대가 전쟁 행위나 평화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미 · 일 방위협력 지침(일명 '가이드라인')에 합의 · 미국 볼티모어 흑인용의자 장례식 후 대규모 폭동...메릴랜드 주 비상사태 · 주 방위군 투입 · 나이지리아 북동부 다마스에서 테러조직 보코하람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수백 구 발견...400구 이상

■ 4월 28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 워싱턴D.C.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미 · 일 공동비전 성명'과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한 공동성명' 발표 · 나이지리아 정부군, 보코하람의 근거지인 삼비사 숲을 기습해 여학생 200명과 여성 93명 구출 · 인도네시아 정부, 프랑스 · 호주 · 브라질 · 나이지리아 등 국적의 외국인 7명을 포함한 마약 사범 8명에 대한 총살형 집행 · 콜롬비아,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 폭발로 '녹색경보' 발령

■ 4월 29일

· 제17차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동북아시아 환경 현안에 대한 논의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미 · 일 동맹이 아시아 · 태평양 안보의 기둥'

■ 5월 ■

■ 5월 2일

•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 부부, 둘째 '로열베이비' 출산...이벤언 딸

■ 5월 3일

•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 인근 갈랜드에서 열린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 그림 전시 경연대회에서 총격...IS 추정 용의자 2명 사살 •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8·미국),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복싱평의회(WBC)·세계복싱기구(WBO)·세계복싱협회(WBA) 월터급(66.7kg) 통합 타이틀전에서 8체급 석권의 '전설' 매니 파키아오(37·필리핀)에 판정승

■ 5월 4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만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과 '국공(國共) 수뇌회담'을 갖고 양안관계 현안 논의

■ 5월 5일

• 미국, 50여 년 만에 쿠바행 여객선 운항 허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후임으로 조지프 던포드(60) 해병사령관 지명

■ 5월 6일

• 세계 역사학자 187명, "아베 일본 총리 '위안부' 과거사 왜곡 말라"고 집단성명 발표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 극우정당과의 마라톤협상 끝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 구성에 합의

■ 5월 7일

• 영국 총선서 보수당 재집권...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 650석 중 331석을 차지하며 압승·노동당은 232석에 그치며 참패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정치·경제 협력·국제현안 등 논의 • 인도 의회, 수십 년간 계속돼 온 방글라데시와의 국경분쟁을 해결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국경지역의 소수민족 집단거주지 주민 수천 명,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돼

■ 5월 8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사실 확인 • 파키스탄에서 헬기 추락으로 노르웨이·필리핀 대사 등 6명 사망...총리추천 행사 위해 이동 중 사고

■ 5월 11일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쿠바 방문...쿠바 유전개발 등 세일즈 외교 • 필리핀에서 제6호 태풍 '노을'의 상륙으로 2명 사망...3천400여 명 대피 •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역대 최고가인 1억7천936만5천 달러(한화 1천968억1천721만원)에 낙찰

■ 5월 12일

• 미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첫 고위급 접촉...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치의 대통령 관저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 네팔 규모 7.3의 강진 또 발생...최소 50명 사망·1천117명 부상 •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미약 강단 공격으로 세스나 경비행기 격추...승무원 등 탑승자 6명 전원 사망

■ 5월 13일

• 이라크 "IS 2인자 아부 알라 알아프리, 미군 공습에 사망"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게스트하우스, 무장괴한에 피습...미국인 등 5명 사망 •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차 탈선 사고 발생...7명 사망·200여 명 부상 • 콜롬비아 서부에 있는 금광 붕괴...최소 15명 매몰 •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서 규모 6.8의 강진 발생 • 교황청,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

■ 5월 15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철도·광업 등 24개 협력문건에 서명 • 대만, 일본산 식품 수입 전면 중단...방사능 검사·원산지 증명 요구 해오다 협상 결렬 • 미군 특수부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도부를 상대로 첫 기습 지상작전 실시...IS 국방차관·홍보담당 등 핵심간부 4명과 대원 32명 사망

■ 5월 16일

• 미국 하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 표명...국방수권법안에 포함 • 이집트 법원, '탈옥 혐의' 무르시 이집트 전 대통령에 사형 선고...무르시 지지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등 128명에도 사형 선고

■ 5월 17일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이라크 서부 안바르 주의 주도 라마디 점령 선언

■ 5월 18일

• 콜롬비아 북서부 안티오키아 주 살가르 지방에서 산사태 발생해 48명 사망

■ 5월 19일

• 중국·브라질, 530억 달러 투자 협정 체결...리커창 중국 총리,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인프라·금융·농업 등에 관한 35개 투자 협정에 서명

■ 5월 20일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시리아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 완전 장악 • 독일, 2차 대전 기간 중 소련 전쟁 포로 생존자들에게 피해 보상하기로 결정...4천 명에게 1인당 2천500유로(약 300만원)씩 지급 • 일본 자민당 내 친중파인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이 이끄는 일본 대표단 3천 명, 아베 친서 들고 중국 방문 • 미국 샌타버바라 연안에 기름 8만 0 유출·확산...지하 매설 송유관 파열

■ 5월 21일

• 태평양 솔로몬 제도 근해에서 규모 6.9의 강진 발생...쓰나미 우려 없어

■ 5월 23일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 5월 24일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시, 교통사고로 사망
- 5월 25일
 - 폴란드 대선서 '법과 정의당(PS)' 소속의 안드레이 두다(43) 후보 당선...코모로브스키 현 대통령 놀러 · 8월 초 취임
- 5월 26일
 - 미국 국제청 해킹에 10만 명 정보유출...554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 환급이 이뤄지는 피해도 발생 · 미국 4위 케이블 TV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 87조원에 타임워너케이블 인수 확정...공룡업체 탄생
- 5월 27일
 - 미국 국방부,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 등에 살아있는 탄저균 발송 사실 발표 · 국제축구연맹(FIFA) 고위직 6명, 스위스 취리히서 전격 체포...미국, 제프 블라터(79·스위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비리에 대한 수사 착수 · 세르비아 총리, 사상 처음 알바니아 방문...“상호 이견 존중”
- 5월 28일
 - 미국 법무부, 국제축구연맹(FIFA) 전 · 현직 고위 관계자 14명 기소
- 5월 29일
 -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규모 6.9의 지진 발생 · 일본 가고시마 남쪽 섬 분화...화산재 9km 치솟아 · 인도 일부지역에서 폭염으로 사망자수가 1주일여 만에 1천7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20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 발생
- 5월 30일
 - 제프 블라터 FIFA 회장 5선 성공...6월 3일 회장직 돌연 사임

■ 6월 ■

- 6월 1일
 - 중국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젠리현 부근서 454명 탄 여객선 침몰로 442명 사망 · 미국 · 베트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의 공동 비전 성명에 서명
- 6월 2일
 -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전격 사퇴 · 네팔에서 국경없는의사회(MSF) 소속 의료진 등 4명이 탄 헬리콥터가 지진 구호활동을 하고 돌아오다 추락...탑승자 전원 사망
- 6월 3일
 -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로 15명 사망
- 6월 5일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시나봉 화산 분출...약 3천명 대피 · 미국 텍사스 주 매키니의 크레이그 랜치 주택가의 공동 수영장에서 미국 경찰이 14세 흑인 소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동영상 공개돼 파문...경찰 사임
- 6월 6일
 - 인도 · 방글라데시, 40여년 국경분쟁 종식...방글라데시의 인도인 거주지는 방글라데시 영토로, 인도의 방글라데시인 거주지는 인도 영토로 인정 · 뉴욕 맨모라의 클린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살인범 2명 탈옥...28일 1명 사살 · 1명 체포

- 6월 7일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크린 지역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글로벌 이슈 논의 · 터키 총선에서 집권 정의개발당(AKP),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13년 만에 연립정부 구성 · 2015 FIFA 여자 월드컵, 캐나다에서 개막...한국,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 FC바르셀로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
- 6월 8일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지식인 281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와 반성을 명확히 표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 발표 · 애플, 맥 컴퓨터용 운영체제 OS X의 새 버전 '엘 캐피탄'과 모바일 기기용 새 운영체제 'iOS 9' 발표
- 6월 9일
 - 인도네시아,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 시행...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 6월 10일
 - 유럽연합(EU) · 중남미공동체 정상회의,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 ·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교황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접견...교황, 푸틴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진실한 노력 촉구 ·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방중...국가원수급 대우
- 6월 11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와 회담...미얀마의 미래권력 수치 여사 확대 ·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이라크 북부 살라하딘 주 티크리트 부근에서 시신 600구 발굴...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최대 학살 현장
- 6월 12일
 - 필리핀 최대 이슬람반군 무장해제 착수...평화협정 이행 · 프랑스 법원, 매춘 알선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무죄선고
- 6월 14일
 -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쯤이(遵義)시에서 9층짜리 낡은 아파트 절반 붕괴...4명 사망 · 실종
- 6월 15일
 - 러시아 또 금리 인하...기준금리 12.5%에서 11.5%로 인하 · '중동 최대'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타다울), 외국인 기관투자자에 개방 · 중국 하얼빈-독일 함부르크 간 국제화물열차 개통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62),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세 번째 부시 대통령' 도전
- 6월 17일
 - 호주 ·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세계 12대 경제블록 탄생”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20대 백인 남성의 총기 난사로 9명 숨져...범행 14시간 만인 18일 오전 용의자 검거
- 6월 18일
 - 프란치스코 교황, 기후변화 대처 위한 환경 회칙 발표 · 미

국 상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안 가결 · 116세 세계 최고령 할머니인 미국의 제럴린 텔리 여사 별세

■ 6월 19일

· 영국의 해리 왕자(30), 1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공식 전역
· 미국 '케이블TV 선구자' 랠프 로버츠 별세...향년 95세

■ 6월 20일

· 인도 뭄바이서 메탄올이 든 밀주를 마시고 90명 사망 · 세르비아, 뉴질랜드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꺾고 우승

■ 6월 21일

· 스마트폰 G4, 멕시코시티 시민들이 연달아 총 746장의 셀피(자가촬영사진)를 찍어 기네스북에 '가장 긴 셀피 릴레이' 기록 등재

■ 6월 22일

·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의사당 공격...민간인 33명 사상 · 반군 7명 전원 사망

■ 6월 23일

· 일본 도쿄 남쪽 북태평양서 규모 6.9의 강진 발생...쓰나미 우려 없어

■ 6월 24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류연동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 접견...“북한의 핵 · 경제 병진노선 성공 못 해”
· 엘리자베스 2세(89) 영국 여왕, 사흘간 일정으로 독일 국민방문...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동 · 종전 70돌 맞아 전쟁희생자 추모 '노이에 바헤' 헌화

■ 6월 25일

· 파키스탄 남부 신드 주에서 30여 년 만에 닥친 불벌더위로 1천 명 이상 사망

■ 6월 26일

·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 IS의 쿠웨이트 · 튀니지 · 프랑스 동시다발 테러로 최소 66명 사망

■ 6월 27일

·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협상 국민투표 시행 안 의결 ·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 · 대만 타이베이 인근 워터파크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중상자 약 200명 포함해 500여 명 부상

■ 6월 28일

·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제한 조치 발표...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임박 ·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 동시 인하...1년 정기예금과 대출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고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도 0.5%포인트 인하 · 민간 우주선 개발 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발사한 지 2분 19초 만에 공중 폭발

■ 6월 29일

·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실상 공식 출범...베이징서 한국과 러시아 · 인도 · 독일 · 영국 등 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 개최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에 서명 · 하삼 바라카트 이집트 검찰총장, 출근길 차량 폭탄테러로 사망...IS 보복 가능성 · 그리스 아테네에서 1만3천여 명이 모여 긴급반대 시위 벌여 ·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와 바이오기업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공동 연구진, 메르스 치료제 첫 개발...동물실험서 효과 나타나

■ 6월 30일

· 일본 오사카행 신칸센 열차 안에서 70대 남성 분신...2명 사망 · 20여 명 부상 · 인도네시아 공군 수송기, 수마트라 주 메단 주택가에 추락...최소 116명 사망 · 예멘 교도소서 알카에다 대원 등 1천200명 탈옥

■ 7월 ■

■ 7월 1일

· 그리스,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불이행 확정...국가부도 상태 · 미국 · 쿠바, 54년 만에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하는 등 국교 정상화 공식 선언 ·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IS 연계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테러 발생...최소 100명 사망 ·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의 조카이자 세계적 투자 회사 킹덤홀딩스(KHC) 회장인 알왈리드 빈 탈랄(60) 왕자, 전 재산 320억 달러(약 36조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감독, 성적부진 책임지고 사임

■ 7월 2일

· 필리핀 중부 오르모크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89명이 탄 선박이 뒤집혀 36명이 숨지고 26명 실종...127명 구조 · 영국의 'BP 그룹'(BP group), 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187억 달러(약 21조원)를 배상하기로 미국 연방정부 및 멕시코만 주변 5개 주정부들과 합의...단일기업 최대 벌금 · 합의금

■ 7월 3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언론 통제' 발언에 대해 8일 만에 대국민 사과 ·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6.5의 지진 발생...최소 2명 사망

■ 7월 4일

· 일본, 도쿄에서 '일 · 메콩강 5개국 정상회의' 개최...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태국 · 베트남 등 동남아 메콩강 주변국에 7조원 지원 약속

■ 7월 5일

· 프란치스코 교황, 남아메리카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에콰도르 도착...“남미는 연약한 소외 계층에 가장 큰 빛을 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 촉구 ·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던 일본인 모모이 사카리(百井盛) 씨, 112세로 별세

■ 7월 6일

· 그리스, 국민투표 긴급안 거부...찬성 38.7% · 반대 61.3%로 채권단의 구제금융안 부결 ·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 캐나다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

■ 7월 7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응우옌 푸 쩡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 7월 8일

• 브릭스(BRICS) 및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러시아 우파에서 개막(~9) • 중국 증시, 한 달 새 32% 대폭락하고 1천400개 종목 거래중지...중국 정부, 대주주 주식매도 6개월 금지 • 주식담보대출 연장 등 증시 부양 초강수 • 영국 런던 지하철 24시간 파업 돌입...9월부터 시행될 24시간 운행 반대 • 마이크로소프트(MS), 휴대전화 부문을 중심으로 직원 7천 800명 감원, 84억 달러(9조5천억원)를 회계상 손실 처리

■ 7월 9일

• 그리스 정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경제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연금 줄이고 세금 더 걷기로 • 미국 육군, 국방비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재 49만 명인 병력을 2년 이내에 45만 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전력 구조 개편 계획 발표

■ 7월 10일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인종차별 상징 남부연합기 '공공장소 퇴출법' 통과시켜 • 영화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이집트 출신 영화배우 오마 샤리프, 83세로 별세

■ 7월 11일

• 멕시코 서부의 콜리마 화산 폭발...주민 80여 명 대피 • 멕시코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66), 2001년 탈옥했다가 검거된 지 1년 반 만에 다시 교도소 탈출...사위실서 '증발'

■ 7월 12일

• 콜롬비아 정부군 · 반군, '완전한 휴전 노력' 합의 •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의 한 군부대에서 병영 건물 붕괴...최소 23명 사망

■ 7월 13일

• 유로존 정상회의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 '그렉시트' 우려 해소

■ 7월 14일

•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완전 타결...미국 · 러시아 등 6개국,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이란과 합의 •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일본 시민 약 2만 명(주최 측 집계) 참가 • 미국 우주탐사선 뉴호라이즌스호, 명왕성 최근접점 통과

■ 7월 15일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관련법 개정 작업, 중의원 특별위원회 통과...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 시민 6만 명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열어

■ 7월 16일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법안 의회 통과...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내 강경파 의원들의 이탈표 대거 발생 • 유럽중앙은행(ECB), 그리스 은행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 증액...1주일간 9억 유로 늘려 그리스 은행 정상화에 도움될 듯 •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여당 강행 처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 · 중 접경 연변 조선족자치주 첫 방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연방교도소 방문...남부 오클라호마 주 엘리노의 연방 교도소 • 미국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해군 모집 사무소와 해군 예비역 센터 등 해군 시설 두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용의자 포함해 5명 사망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시리아군 참수하는 어린이대원 영상 유포

■ 7월 17일

• 예멘서 폭탄테러로 어린이 포함 25명 사망... '후티스'라는 반군 세력, 알카에다 시아파 반군 지도자인 압둘라 이드리스를 겨냥해 차량 두 대로 공격 감행

■ 7월 19일

•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에 첫 공식 사과...회사 대표단, 미국 LA에서 징용 피해자인 제임스 머피(94) 씨를 만나 머리 숙여 • 예멘 시아파 후티 반군, 남부 항구도시 아덴의 한 마을 집중 포격...사망자 10여 명 • 인도 뉴델리서 4층 다가구 주택 무너져 최소 5명 사망

■ 7월 20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미국 · 쿠바, 54년 만에 상대국에게 대사관 재개설 • 터키 남부의 시리아 접경 마을 수루치에서 대규모 폭탄 공격 발생으로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 부상...IS의 자폭테러 가능성 • 일본 학자 1만여 명, 집단적 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항의 성명 발표 • '불륜 조장' 의혹을 받는 이성교제 웹사이트 '애슐리매디슨' 해킹당해...회원들 '불안' • 잭 존슨(미국), 제144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

■ 7월 21일

• 일본, 11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 포함...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 • S&P,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2단계 올리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

■ 7월 22일

• 인도네시아 자바 섬 동부에 위치한 라웅 화산이 또 대규모 화산재를 분출해 발리 공항 일시 폐쇄 • 미국 뉴욕 주 임금위원회,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경전 코란이 영국 버밍엄대 도서관에서 발견...최소 1천370년 전 제작

■ 7월 23일

• 일본 닛케이그룹, 1조5천200억원에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 인수 • 미 · 러 · 일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발사...6시간 후에 국제우주정거장(SS)에 도킹 •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지구에서 1천400광년 거리에 있는 태양계 밖에서 '또 하나의 지구'를 최초로 발견...항성 '케플러-452'와 그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 '케플러-452b'를 발견 • 행성 '케플러-452b'는 지름이 지구의 1.6배로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다고 밝혀

■ 7월 24일

• 세계무역기구(WTO),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유럽연합(EU) 등 52개국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반도체 · 자기공명장치(MRI) 등 주요 IT 관련 제품 201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 협상 타결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인 케냐 방문 •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역한 중국인 3천765명에게 사과 · 보상...1인당 10만 위안(한화 1천870만원)에 합의

- **7월 26일**
 - 2015 하계스페셜올림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 (~8.3)~177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단 참가 • 일본 도쿄 조후시 주택가에 5인승 경비행기 추락~3명 사망 • 5명 부상
- **7월 27일**
 - 중국 증시 8.5% 폭락하는 '블랙먼데이' 맞아~8년 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 인도 북부 펀자브 주 구르다스푸르에서 무장괴한이 경찰서 • 버스 총격~3명 사망
- **7월 28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 나흘간 일정으로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개막
- **7월 29일**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무장반군단체 탈레반을 결성한 최고 지도자 몰라 무하마드 오마르가 2년 전 숨졌다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확인 • 마이크로소프트(MS), 차세대 운영체제(OS)인 윈도우10을 전 세계 190개국에서 공식 출시
- **7월 30일**
 - 유엔, 야생동 • 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이스라엘 '게이 퍼레이드'서 극단적 정통파 유대교도 칼부림~부상 6명 중 2명 위독 •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센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올해 수카르노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 • 첫 한국계 미국 해병대 장성인 대니얼 유(55) 준장, 미국 해병 제1사단장에 취임
- **7월 31일**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국 베이징을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

■ 8월 ■

- **8월 1일**
 - 인도 • 방글라데시, 68년 만에 국경문제 해결~1일 0시를 기해 양국 국경 주변 마을 162곳을 상호 교환 • '지소연 결승골' 첼시 레이디스, 여자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우승~영국 BBC "지소연은 작은 마법사"
- **8월 3일**
 -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들어가 • 미국 뉴욕 레지오넬라균 확산~4명 사망 • 70명 감염
- **8월 4일**
 - 제48차 아세안 외무장관회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윤병세 외교부 장관 참석 • 인도 정부, 나가족 분리주의 반군단체인 전국나갈랜드사회주의위원회(NSCN)와 평화협정 체결~60년 분쟁 종식 •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 하르다에서 열차 2량 잇달아 탈선~최소 32명 사망 • 콜롬비아 마약깡단 수색 헬기 추락~경찰 15명 사망 • 러시아 남부에 참새만한 크기의 대형 메뚜기 떼 습격~비상사태 선포
- **8월 5일**
 - 리비아 인근 지중해에서 기상악화로 난민선 전복~최대 200여 명 사망 • 미국, 무장 드론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근거지 첫 공습

- **8월 6일**
 -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48차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공동성명 채택~"북한 미사일 발사 우려" • 이집트 제2의 수에즈운하 개통~개통식에 각국 지도자 등 6천 명 참석
- **8월 9일**
 - 미국의 케이티 레데키(18),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2015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800m에서 8분07초39로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우승
- **8월 10일**
 -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 설립~사업 확장 위한 구조개편
- **8월 11일**
 - 그리스 • 채권단,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구제금융 850억 유로 규모 • 일본, 샌다이원전 재가동~'원전제로' 23개월 만에 종료 • 중국, 수출 부양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달러 • 위안 기준환율을 6.2298위안으로 제시해 전날의 6.1162위안보다 1.86% 높게 고시 • 아시아 외환시장 '쇼크' • 구글의 새 최고경영자(CEO)에 인도 출신 순다르 피차이(43) 임명
- **8월 12일**
 - 중국 텐진항에서 폭발사고로 최소 173명 사망 또는 실종
- **8월 13일**
 - 중국, 사흘째 위안화 절하~또 1.1% 내려 사흘간 달러 • 위안화 중간가격(기준환율) 4.66%(6.4010위안) 평가절하 • "환율조정 거의 완료"
- **8월 14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 발표~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직접 사죄하지 않아 "일본, 반복해 사죄해왔다" • 쿠바주재 미국대사관, 성초기 계양~54년 만에 국교정상화 완결
- **8월 15일**
 - 일본 헌직각료 • 의원들, 패전 70년을 맞아 '전범합사' 야스쿠니 참배~각료 3명 • 국회의원 66명 집단참배 • 아키히토 일왕, 종전 7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 에콰도르 코토팍시 화산 분출 시작~정부 비상사태 선포
- **8월 16일**
 - 54명 탑승 인도네시아 여객기, 착륙 10분 전 파푸아 주 상공에서 실종~탑승자 전원 사망
- **8월 17일**
 - 유엔, 시리아 내전 종식 • 평화 모색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9월 실무그룹 출범 • 태국 방콕 에라완 시원 인근 폭탄 테러로 20명 사망 • 미군 사상, 첫 레인저 스콜(미육군 특수부대 훈련 과정) 여성 수료자 탄생~육사 출신 장교 두 명 • 17세 브룩 헨더슨(캐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컴비아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나이 제한에 비회원으로 출전해 LPGA 풀시드권 확보 • 제이슨 데이(호주),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PGA챔피언십에서 우승~20언더파로 메이저 역대 최저타
- **8월 18일**
 - 중국 상하이지수 장중 6%대 폭락 • 미국서 논란의 '여성용 비아그라' 애디(Addyi, 화학명: 플리반세린) 첫 승인

- **8월 19일** -----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그리스에 3년 동안 860억 유로(약 112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3차 구제금융안 최종 승인… 34조원 첫 지급 • 국제유가, 과잉 공급 우려로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82달러(4.3%) 떨어진 배럴당 40.80달러에 마감
- **8월 20일** -----
 - 이집트 수도 카이로 북부 슈브라 지역의 국가 보안기관 건물 인근에서 대형 폭발…인명피해는 확인 안 돼
- **8월 21일** -----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 '겨자 작용제'(mustard agent) 첫 사용
- **8월 22일** -----
 - 중국 산둥성 쑤보시의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1명 사망 · 9명 부상
- **8월 23일** -----
 - 영국 · 이란, 4년 만에 대사관 동시 재개관…관계 회복의 발판 마련 • IS, 2천 년 된 시리아의 팔미라 고대신전 폭파 •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시민 수천 명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극렬하게 시위 벌여…사망 1명 · 부상 400여 명
- **8월 24일** -----
 - 중국 증시, '블랙먼데이' 8.49% 폭락…8년 만에 최대 낙폭
 - 우크라이나 · 독일 · 프랑스 3자 정상회담, 독일 베를린에서 열려…“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민스크 협정 이행태야”
 - 뉴욕 증시, 중국발 쇼크로 장중 1천89포인트 하락… 사상 최대 • 기존 독감 · 신종플루 등 여러 인플루엔자에 통하는 '범용 백신'의 동물실험 성공…미국 제약사 안센 개발
- **8월 25일** -----
 - 터키 동부에서 치안당국과 쿠르드족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 간 유혈충돌 악화…127개 지역 민간인 출입 제한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섬의 해수욕장 와이키키 해변, 오페수 유입으로 잠정 폐쇄…오페수 189만ℓ 유입 •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블랙홀에도 출구 있다”…새 이론 발표
 - 프랑스 북부 집시촌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등 4명이 숨지고 3명 부상…원한 범행 추정 • 제15호 태풍 '고니' 일본 상륙… 폭우 · 강풍에 부상자 속출
- **8월 26일** -----
 - 중국, 경기 둔화 및 증시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4.60% ·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 살바 키르 남수단 대통령과 반정부군, 20개월 이어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타결 • 미국 버지니아서 방송기자 2명이 생방송 도중 해고된 전직 동료기자의 충격으로 사망…용의자 도주 중 스스로 총 쏘 후송됐으나 숨져
- **8월 27일** -----
 - 그리스 대통령, 내달 20일로 예정된 조기총선까지 과도정부를 이끌 총리로 바실리키 타누(65) 대법원장 임명…그리스 역 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 •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 2척이 지중해에서 전복돼 약 200명 사망…전날도 난민선

3척에서 사망자 55명 • 오스트리아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냉동 트럭에서 난민 시신 7구 발견…대부분 시리아인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 • 페이스북, 하루 사용자 수 10억 명 돌파 • 우사인 볼트(29 · 자메이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에서 19초55의 기록으로 우승…대회 4연패 달성 • 리오넬 메시(28 · 아르헨티나), 2014~2015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최우수선수에 선정

- **8월 28일** -----
 -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실은 포털 개설 • 미국 플로리다주, '열대성 폭풍' 에리카 대비 비상사태 선포
- **8월 29일** -----
 - 터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한 미군 주도의 연합군 공습에 처음으로 동참 • 말레이시아에서 나집 라작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열려…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을 비판하며 사퇴 촉구
- **8월 30일** -----
 - 일본 열도 300여 곳에서 안보법안 반대 시위 동시다발로 열려…국회 주변에서 12만 명 시위 •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州) 담맘 시(市) 알코바르 지역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직원숙소에서 화재 발생…11명 사망 · 219명 부상 •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방의회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후보 등록 개시
- **8월 31일** -----
 - 우크라이나 의회, 동부지역을 장악한 반정부 친러세력 자치권을 확대해 주는 헌법 수정안 가결…국회의사당 앞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경찰 무력충돌로 1명 사망하고 약 100명 부상

■ 9월 ■

- **9월 1일** -----
 - 중국, 보이스 피싱과 전쟁선포…엄격한 휴대전화 실명제 실시
- **9월 2일** -----
 - 세 살배기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 터키 해변서 숨진 채 발견돼…전 세계 공분 •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한 시아파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 테러…IS 소행 주장 · 최소 28명 사망 · 75명 부상
- **9월 3일** -----
 -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 개최…박근혜 대통령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참석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선언 • 뇌물 비리 의혹에 휘말린 오토 페레스 몰리나(64) 과테말라 대통령 사임…면책특권 박탈 · 체포영장 발부 후 법원 자진 출두
- **9월 4일** -----
 - 유럽 최대의 국제가전전시회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5', 독일 베를린의 메세베를린(베를린 박람회장)에서 공식 개막…삼성전자 · LG전자 등 총 1천645개 글로벌 가전업체 참가 • 한성방 LG디스플레이 사장, 디스플레이 업체론 첫 개막식 기조연설

■ **9월 5일**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와 금융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코위니케) 발표

■ **9월 6일**
 • 과테말라, 전 대통령과 부통령이 세관 뇌물 비리 혐의로 수감되는 정국의 혼란 속에서 총선 투표 개시

■ **9월 7일**
 • 유럽각국 난민 추가수용 발표...독일 3만1천 명 · 프랑스 2만4천 명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앞으로 5년간 시리아 난민 2만 명을 받아들일겠다고 발표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시리아 난민 2만 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 카리브해의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선에서 야당인 인민민족운동(PNM) 승리...정권 교체

■ **9월 8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를 투표 없이 연임...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자민당 총무회장의 출마 포기로 단독 후보 출마
 • 압둘 카림 파리스 이라크 법무차관 직무대행, 바그다드 북부 비누크 지역에서 과한에 납치

■ **9월 9일**
 • 엘리자베스 2세(89) 여왕, 영국 역사상 최장 재위 군주로 기록...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간인 2만3천226일 16시간 23분(약 63년 7개월) 넘어서

■ **9월 10일**
 • 18호 태풍 '아타우' 일본 동부 강타...기록적 폭우로 20명 넘게 실종 · S&P,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 · 구글, 미국서 안드로이드 페이 서비스 개시

■ **9월 11일**
 • 싱가포르 조기 총선 투표...50년 동안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의 집권 토대가 강화될지 주목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Grand Mosque · 마지드 알하람) 증축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대형 크레인 이 쓰러지면서 건물 붕괴...107명 사망 · 230여 명 부상

■ **9월 12일**
 • 일본 도쿄만(灣)에서 규모 5.2의 강진 발생...15명 부상 · 일본 홋카이도 근해서 규모 5.4의 강진 발생 · 베네수엘라 영화감독 로렌조 비가스의 데뷔작인 '프롬 아파'(From Afar, 원제목 Desde Alla), 제7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수상

■ **9월 13일**
 • 러시아 전역에서 주지사 · 주 의회 의원 · 시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실시 · 그리스 에게해에서 난민선 또 전복...최소 34명 사망

■ **9월 14일**
 • 러시아 지방선거서 여당 '통합 러시아당' 압승...21개 주 주지사 선거서 여당 후보 20명 당선 · 토니 애벗 호주 총리 낙마...말콤 턴불(60) 통신장관, 자유당 당대표 선출 투표에서 새 총리로 선출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 남부 가즈니 주의

한 교도소 공격...수감된 탈레반 대원 등 436명 탈옥 ·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 분화...2천m 상공까지 연기 치솟아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2만 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2개 산불로 맨해튼 9배 면적 불타
 • 중국, 고해상도 관측위성 가오편 9호 발사 성공

■ **9월 15일**
 • 제70차 유엔총회,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25일 교황 · 28일 미 · 중 · 러 · 쿠바 정상 연설 · 헝가리 개정 이민법 발효...국경 철조망 훼손 땀 징역형

■ **9월 16일**
 •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규모 8.3의 강진 발생...11명 사망 · 24만 가구 단전 · 칠레 해안 전역과 페루에 쓰나미 경보 발령 · 하와이에도 쓰나미 주의보 · 칠레 재난사태 선포 · 헝가리 · 세르비아 국경서 경찰과 난민 충돌...수십 명 부상 · 일본 전직 판사 75명, '집단 자위권 법안'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의견서에 서명 · S&P,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경제회복 가능성 떨어져” · 2022년 하계아시아게임 개최지로 중국 저장성 항저우 선정

■ **9월 17일**
 • 유럽의회, 난민 12만 명 분산 수용안 승인 · 서아프리카 소국 부르키나파소에서 또 군부 쿠데타 발생...과도정부 대통령 · 총리 억류 ·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안보 관련법안 강행 처리...본회의 통과되면 확정 · 이란 핵협상 합의안, 미국 의회 통과...다음 달 발효 · 국제축구연맹(FIFA),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윤리위원회에 공식 조사 명령...스캔들 조사 확대
 • 미국 GM, 차량 점화스위치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9억 달러(1조50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법무부와 합의

■ **9월 18일**
 • 미국 환경보호청(EPA),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적발 · 크로아티아, 쏟아지는 난민 유입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세르비아와의 국경 길목 차단...슬로베니아, 국경통제 가세 · 파키스탄 공군기지에서 정부군과 탈레반 교전...42명 사망 · 10명 부상

■ **9월 19일**
 • 일본 참의원, 집단자위권법안 가결...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로 · 프란치스코 교황, 쿠바의 아바나 공항 도착...쿠바 · 미국 열흘 일정 시작 · 독일의 폴크스바겐(VW) 그룹, 아우디A3 등 디젤 차량(5종)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 사실 발각돼 미국 내 판매 전면 중단...미국서 약 50만 대 리콜

■ **9월 20일**
 • 프란치스코 교황, 아바나에서 피델 카스트로(89)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동...지론 담은 서책 교환하며 40분간 대화 ·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가 이끈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조기총선에서 승리...시리자 · 독립그리스인당 연정 재출범 · 프랑스 연구팀, 시험관에서 인간의 성숙한 정자를 만드는 데 최초로 성공 · 비올라 데이비스, 흑인 최초로 에미상 여우주연상 수상

■ **9월 22일**
 • 유럽연합(EU) 각료회의서 난민 12만 명 분산 수용안 통과...

28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최종 정착지 추가 협의 필요 ·프란치스코 교황, 미국 방문...오바마 미국 대통령,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극진히 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 겸 첫 미국 국민 방문차 출국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2기 내각 출범...대부분 장관 취임 ·샌프란시스코 시의 회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 ·중국 신장서 위구르족 분리주의자 탄압 습격...40명 사상 ·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CEO,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에 사임

■ 9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시리아 인접국 난민에 10억 유로 지원 합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쿠바 아바나에서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지도자와 첫 대면...6개월 이내 평화협정 체결기로 합의 ·중국 텐진항 폭발서 구조된 19세 소방관, 41일 만에 깨어나... '기적' ·사진 및 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월 사용자 4억 명 돌파...9개월 만에 1억 명 증가

■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서 이슬람 성지순례 도중 압사 사고로 최소 2천110명 사망 ·프란치스코 교황,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년 참의원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정식 선언...최종 목표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9조' 삭제 ·일본 이와테현 지방의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을 폐지 요구 의결서 가결

■ 9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남중국해 ·인권문제 충돌 ·인도네시아서 규모 6.6의 지진 발생...쓰나미 경보는 발동 안 돼

■ 9월 27일

·프랑스,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첫 공습

■ 9월 2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 "화성 지표에 소금물이 흐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

■ 9월 29일

·영국 외교부, 대북제재 명단 발표...개인 33명 ·기업 36개 ·중국,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반둥 간 150km 고속철 공사 수주...동남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따낸 첫 고속철 사업

■ 9월 30일

·러시아,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첫 공습 감행...러시아, 26년 만에 중동 군사개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미국과 독일 등에서 진행했던 총 18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 10월 ■

■ 10월 1일

·이란, 시리아에 지상군 파견...시리아 정부군과 협력해 러시아의 IS 공습 지원 ·미국 오리건 주 로즈버그의 엄프과 칼리

지에서 총격사건 발생...범인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약 20명 부상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 폭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사망 280명 ·실종 70명

■ 10월 2일

·미국 공군의 허큘리스 C-130 수송기,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 공항에서 추락...최소 12명 사망

■ 10월 3일

·아프가니스탄 '국경없는 의사회'(MSF) 병원, 미군 공습으로 환자와 의사 등 19명 사망...오바마 "희생자 애도" ·방글라데시 북부에서 일본인 남성 피살...IS,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

■ 10월 4일

·포르투갈 총선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연립 여당,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집권 성공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시리아 팔미라에서 2000년 된 유적지 개선문 파괴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강타...집중호우로 최소 8명 사망 ·초속 50m의 강력한 태풍을 동반한 제22호 태풍 '무지개', 중국 광둥성 상륙...광둥성 기상당국, 1급 대응태세에 돌입하고 서부 연안 지역에 황색경보 발령

■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을 전망치를 연 7.1%에서 연 6.9%로 하향조정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를 일정으로 인도 방문...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미국의 장거리 여객 철도 암트랙(AMTRAK), 버몬트 주(州)에서 탈선사고...7명 부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동부 도시 바쿠바 ·남부 도시 바스라의 시아파 다수 지역에서 연쇄 폭탄테러 발생...최소 56명 사망 ·수십 명 부상 ·2015년 노벨생리 의학상에 기생충으로 인한 전염병 치료약 연구에 헌신한 아일랜드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윌리엄 캠벨(85) 미국 뉴저지 주 매디슨 드루대학 명예 펠로우 ·오무라 사토시(80) 일본 기타사토대 명예교수 ·중국의 투유유(85 ·여)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 등 3명 공동 수상 ·한국 여자축구의 에이스 지소연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첼시 레이디스, 정규 시즌 우승

■ 10월 6일

·중국 위안화, 달러 ·유로 및 파운드에 이은 세계 4위 결제 통화로 부상...8월 집계에서 처음으로 엔화 추월 ·2015 노벨 물리학상에 가지타 다카야키(56) 일본 도쿄대 교수와 아서 맥도널드(72) 캐나다 퀸스대 명예교수가 공동수상자로 선정...중성미자 질량발견 공로

■ 10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부과학상 등 10명의 각료를 교체하는 개각 단행 ·2015년 노벨화학상에 토마스 린달(77 ·스웨덴)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교수 ·폴 모드리치(69 ·미국) 미국 듀크대 의과대학 교수 겸 하워드 휴스 연구소 연구원 ·아지즈 산자르(69 ·터키 ·미국 이중국적)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등 3명 공동수상...손상된 DNA(유전자)가 회복되는 원리를 밝혀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

■ 10월 8일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18세 학생이 총격...1명 사망 ·3명 부

상 · 2015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67) 선정...노벨위원회, 전쟁·재난의 증언 다큐소설로 옮겨 새로운 문학장르 개척

■ 10월 9일

· 유엔, 리비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통합정부 구성 계획안 발표...새 통합정부 초대총리 후보자로 이슬람계 정부인사 지명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역내 난민 분산 재배치 계획 가동...이탈리아에 머무는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난민 16명 스웨덴행 · 2015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튀니지 민주화 이끈 시민 그룹 '국민4자대화기구' 선정...노벨위원회,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다원적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

■ 10월 10일

· 터키 앙카라 기차역 앞 IS 자폭테러로 102명 사망 · 터키 쿠르드족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 정부군 상대 공격 중단 선언 · 아프리카 차드에서 보코하람 자살폭탄 테러로 41명 사망하고 50여 명 부상 · 쿠바,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 · 러시아 국방부, 시리아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시설 55곳을 폭격했다고 밝혀

■ 10월 11일

· 벨라루스 대선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61) 현 대통령이 당선돼 5선 연임에 성공

■ 10월 12일

· 201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영국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선정...노벨위원회 "개인 소비에 대한 이해 높여 빈곤정책에 기여"

■ 10월 13일

· 이란 의회, 지난 4월 핵 협상에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타결한 핵 합의안 승인법안 가결

■ 10월 14일

· 미국·일본·인도, 인도양서 8년 만에 연합훈련...중국 견제

■ 10월 15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탈리아 상·하 양원 합동회의서 연설...이탈리아 유엔가입 60주년·유엔 창립 70주년 기념 초청 연설

■ 10월 16일

·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2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시민이 크게 분노...18일 용의자 17세 남성 2명 체포

■ 10월 17일

· 수단 지상군 6천 명, 예멘 남부 아덴에 상륙...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는 아랍권 동맹군 지원 · 서아프리카 기니의 알파 콩데 대통령, 대선 개표 결과 58%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 ·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5.9·칠레서 규모 5.1의 지진 발생...1명 사망 · 우크라이나 흑해연안서 여객선 전복...최소 12명 사망

■ 10월 18일

·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독일)의 핵합의 이행 개시...핵시설 사찰 후 경제제재 해제 · 이집트 총선 돌입...12월 초까지 1·2차에 걸쳐 시행 · 제24호 태풍 '곶부', 필리핀 강타...4명 사망·2만3천 명 대피 · 이스라엘 남부 베르세바의 버스 터미널에서 팔레스타인인 총격으로 10여 명 사상

· 일본 각료 2명 'A급 전범합사' 야스쿠니신사 참배...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 보내 · 이탈리아에서 122m 길이의 바게트 빵 구워...가장 긴 바게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

■ 10월 19일

· 캐나다 총선서 자유당 압승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 ·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6.9% 기록...6년 반 만에 최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4박5일간 일정으로 영국 국민방문 ·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와 맞댄 국경 관문 전격 재개방...난민 3천여 명 입국

■ 10월 20일

· 미국·러시아, 시리아 영공에서 양국의 전투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안전 양해각서 서명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최근 유혈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깜짝 방문 · 일본 국회의원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영국 의사당 웨스트민스터에서 연설...“양국관계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리자” · 국제축구연맹(FIFA), 내년 2월 총회에서 제프 블라터 현 회장을 교체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실시

■ 10월 22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상황보고서' 제출...보고서 "인권 문제 최고책임자 처벌 노력도 이뤄져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나와서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정상회담...핵무기 개발 자제 촉구 · 스웨덴 남부 대도시 예테보리 인근 트롤하텐 지역의 한 학교에서 괴한 흉기난동...2명 사망·2명 중상·범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

■ 10월 23일

· 중국, 두 달 만에 기준금리 0.25%p와 지급준비율 0.5%p 동시 인하...고강도 추가 경기부양 의지

■ 10월 25일

· 폴란드 총선에서 '반난민' 보수야당인 '법과정의당'(PiS), 8년 만에 재집권...민주화 후 첫 단독정부 구성 전망 · 과테말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TV 코미디언 출신의 야당 정치 신에 지미 모랄레스(46)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10월 26일

·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베이징에서 비공개리에 개막...미래 5년간 성장률 6%대로 하향 전망 ·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조코위, 한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선언 ·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규모 7.5의 강진 발생...400명 이상 사망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소시지·햄· 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

■ 10월 27일

· 미 해군 구축함,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약 22km) 안으로 첫 진입...중국, 구축함 2척을 파견해 미 군함에 경고

■ 10월 28일

· 중국, '일본인 4명 스파이 혐의 구속' 공식 확인 · 니페에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비드야데비 반다리(54) 공산당 부의장, 의원 투표에서 당선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 토성의 제2 위성인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역 48km까지 근접 통과

■ 10월 29일

• 중국, 35년 만에 '1자녀 정책'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2자녀 허용
• 일본, 46년 만에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교외시위 참가 가능

■ 10월 30일

•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에서 1억 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 10월 31일

•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서 IS 소형 폭탄테러로 러시아 여객기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 사망

■ 11월 ■

■ 11월 1일

•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 총선에서 압승...5개월 만에 단도정권 출범

■ 11월 2일

• 인류, 2000년 11월 2일 우주정거장(SS)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 15년 동안 연속 체류하는 기록 세워
• 중국 독자 개발 중 대형 상업용 여객기 C919 공개
• 로저 페더리(34·스위스), 남자 프로테니스(ATP)투어 스위스 인도로 바젤대회에서 라파엘 나달(29·스페인)을 꺾고 우승...나달을 이긴 건 2012년 3월 이후 3년 8개월 만

■ 11월 3일

• 제3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미·중, 남중국해 문제로 정면충돌
• 미국의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닷컴, 영업 개시 20년 만에 첫 오프라인 서점을 워싱턴 주 시애틀에 개점
• 미국 교통당국, 전 세계적인 리콜 사태를 초래한 일본의 에어백 업체 다카타에 7천만 달러(약 793억원)의 벌금 부과 결정

■ 11월 4일

• 중국·일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4년5개월 만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 놓고 신경전...일본 "항행 자유 중요"·중국 "일본이 상관할 문제 아니다" 응수
•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43) 신임 총리 취임
• 인도네시아 롬복섬에 있는 린자니화산 분화...발리 일대의 2개 공항 일시 폐쇄
• 몰디브 30일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폭발물·무기 발견”
• 남수단에서 현지 항공사 화물기 추락...최대 40여 명 사망

■ 11월 5일

• 제1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외무장관 회의,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안보·경제·기후변화 대처 협력 방안 등 논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국빈 방문...“남중국해 분쟁 억제·안정 노력”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첫 공개...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개방 수준 높아
• 파키스탄의 동부 도시 라호르와 인접한 한 공업지역에서 4층짜리 공장 붕괴...150여 명이 건물 더미에 깔리고 최소 18명 사망

•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 주 마리아나 시에 있는 2개의 광산 댐 붕괴...27명 사망·실종
•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 시연 성공...서로 다른 4개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는 4밴드 기술을 통해 초당 1.2기가비트(Gb)의 속도 시연

■ 11월 7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마잉주 대만 총통, 분단 66년 만에 양안 정상회담

■ 11월 8일

• 미얀마 총선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압승...아웅산 수치 여사, 하원 의원 당선
• 크로아티아 총선에서 '난민 강경 대응' 정책을 표방하는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이 이끄는 야당 연합 승리...연립정부 추진 전망
• 아프가니스탄에서 9세 소녀를 포함한 소수파 주민 7명이 한꺼번에 참수된 채 발견...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 추정
• 알리바바,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사이트인 '여우쿠 투더우'를 45억 달러(5조1천억원)에 인수
• 나이지리아, 칠레에서 열린 2015 FIFA(국제축구연맹) U-17(17세 이하) 월드컵대회에서 우승

■ 11월 9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란 핵협정’으로 관계 냉각 속 1년여 만에 만나
• 스페인 카탈루냐 주 의회, 중앙정부의 경고에도 2017년까지 스페인서 분리독립하는 결의안 채택
• 중국, 남중국해에 조성 중인 인공섬의 현장사진 첫 공개
• 폴크스바겐, 북미 고객에게만 1천 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를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
• 모딜리아니의 회화 '누워있는 나무', 중국 억만장자 수집가에게 1억7천 40만 달러(약 1천972억원)에 경매 낙찰...역대 2위

■ 11월 10일

• 세계반(反)도핑기구(WADA), '러시아가 자국 육상선수들에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발표...국제육상경기연맹(AAF)에 러시아 육상선수들의 모든 국제 경기 출전을 금지시키라고 권고
• 냉전시대 서독 이끈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 별세...향년 96세

■ 11월 11일

•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평화로운 권력 이양 약속
• 중국 판 '블랙 프라이데이' 개시...알리바바, 초대형 쇼핑이벤트 '광군제'(光棍節) 행사에서 12분 만에 1조8천억원 매출 기록
• 밤 10시 현재 14조원 어치 팔려
• 일본, 독자 개발한 첫 제트 여객기 시험비행...미쓰비시항공기 개발 MRJ 나고야공항서 이륙

■ 11월 12일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흘간의 일정으로 영국 첫 방문...16조원 경험 합의
•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43명 사망...IS "우리 소행"
• 구글, '유튜브 뮤직'의 정식 버전을 출시하고 음악 스트리밍 시장 진입

■ 11월 13일

• 프랑스 파리지 IS 소행 동시다발 테러로 총 130명 사망
• 미얀마 수치 야당, '대통령 단독선출' 과반의석 확보
•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IS와의 전투 중 숨진 군인 장례식에서 폭탄 테러로 17명 사망

- **11월 14일**
 -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 사실상 확정...중국 위안화 '5대 국제통화'로 지위 예약
 - 일본 가고시마현 서남서 쪽 193km 해역에서 7.0 규모의 강진 발생...제주도 수심초간 '흔들'
- **11월 15일**
 - 터키 안탈리아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테러 대응책 최우선 의제
 - 프랑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도 격인 시리아 락카에 대규모 공습...테러 응징
- **11월 16일**
 - G20(주요 20개국) 정상들, 프랑스 파리과 터키 앙카라에서 자행된 테러를 규탄하고 테러리즘 척결을 다짐하는 성명 발표...조세회피 막을 '구글세'도 합의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파리 연쇄 테러 배후인 이슬람국가(IS)와 맞서 "테러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미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
 - 메리어트호텔, 122억 달러(약 14조3천억원)에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합의...110만 개 이상의 객실을 가진 세계 최대 호텔로 탄생
- **11월 17일**
 - 프랑스, 이슬람국가(IS) 공습을 위해 핵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지중해로 파견...사흘째 IS 심장부 공습
 - 러시아, 지난 달 말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추락한 자국 여객기 폭발 테러 사건과 관련해 5천만 달러(약 586억원)의 현상금 내걸어...푸틴 대통령 "반드시 응징하겠다"
 - 프랑스를 동맹국으로 지칭하고 전략목적기로 락카 공습
 - 국제 해킹 그룹인 '어니니머스'(Anonymous), 파리 테러의 주범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 개시...IS 조직원 트위터 계정 5천500개 이상을 폐쇄
- **11월 18일**
 - 러시아·북한,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 프랑스 경찰, 파리 연쇄 테러범 검거 작전을 벌여 파리에서 추가 테러를 준비하던 테러 조직 소탕...테러 용의자 2명 사망·8명 체포
 - 이슬람국가(IS), 지난 9월 선전용 영문잡지 다이크에서 몸값을 주고 사라고 광고한 중국과 노르웨이 국적의 인질 살해
- **11월 19일**
 - 유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반테러 협력강화·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 노력·통화 평가절하 경쟁 자제·보호주의 배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발표
 - 파리 연쇄 테러 총책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사망 확인...파리 외곽 생드니에서 테러 용의자 은신처 급습작전 때 사살
- **11월 20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IS 격퇴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5개 상임이사국 이해 갈려 유엔 주도의 군사작전 못해
 - 말리 수도 바마코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래디슨블루에서 인질테러 발생...인질 19명과 테러범 2명 등 모두 21명 사망
- **11월 21일**
 - 벨기에, 파리테러 유사 테러 정보 입수...테러경보 최고 등급

- 으로 올린 가운데 브뤼셀 시내의 지하철 폐쇄
- **11월 22일**
 - 아세안 16개국과 한·중·일 정상, '2016년까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을 타결해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채택
 -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에서 보수 중도우파 성향의 야당인 '공화주의 제안당'(PRO) 소속이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인 마우리시오 마크리(56) 후보 당선...12년 만에 정권 교체
 -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총기난사...최소 16명 부상
 - 미국의 거대 제약사 화이자와 보톡스 제조업체 얼러간 합병...세계 최대의 제약회사 탄생
 - 터키 해안에서 시리아 난민인 네살 소녀 '세나'의 시신 발견...제2의 쿠르디
- **11월 23일**
 - 일본 도쿄 아스쿠니신사 화장실서 폭발 사고 발생...시한폭탄부품 추정물품 발견
 - 벨기에 경찰, 브뤼셀 전역과 공항이 있는 남부 도시 샤를루아에서 22건의 검거 작전을 벌여 테러 용의자 16명 체포...압데슬람은 또 놓쳐
 -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공격 개시
 -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규모 5.5의 지진 발생...건물 강하게 흔들려
- **11월 24일**
 - 터키 공군 F-16s 전투기, 러시아 수호이(Su)-24 전투기 격추...터키 "10차례 영공 침범 경고했다"
 - 러시아 "시리아 상공 비행" 반박
 - 프랑스 전투기, 이라크 서부 모술 지역의 이슬람국가(IS)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공습
 - 브라질 접경 페루 남동부 아마존 밀림지역에서 규모 7.5의 강진 발생...피해 없을 듯
- **11월 25일**
 - 러시아, 최신예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터키 인접'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 공군 기지에 배치...미국 "큰 우려"
 -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대통령 경호원 수송 버스를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최소 12명 사망...IS 소행 주장
 - 튀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리비아 국경 폐쇄
- **11월 26일**
 - 프란치스코 교황,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첫 미사 집전...20만 명 운집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군 개혁지침 발표...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미국식 연합사령부 창설 공식화
- **11월 27일**
 - 프란치스코 교황, 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우간다 도착
 - 방글라데시 북부의 한 시아파 사원에서 무장괴한 총격에 4명 사상...IS "우리 소행"
 - 나이지리아 북부 제2의 도시인 카노 인근에서 자살폭탄 테러 발생...최소 21명 사망·40명 이상 부상
 -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진료소에서 총기 난사...3명 사망·9명 부상
- **11월 28일**
 - 터키 동부 도시 디야르바크르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쿠르드족 유명 변호사 피격 사망
- **11월 29일**
 -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벨기에 브뤼셀에서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30억 유로(약 3조7천억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난민 대책 협력에 합의
 • 민주공고서 우간다 반군 공격에 유엔군 등 최소 13명 사망

■ 11월 30일

•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150개국 정상들 참석 • 중국 위안화, 국제 기축통화인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에 편입...편입 시점은 2016년 10월 1일 • 중국, 농촌에 방치된 농민공 자녀를 돌보기 위한 '대리 어머니'제도 도입 • 미국 국무부, 지난 24일 터키 공군에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 •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에서 시아파 성지순례객을 대상으로 자살폭탄 테러...9명 사망

■ 12월 ■

■ 12월 1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짐바브웨 국민방문...무가에 짐바브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차관 제공 약속 • 아프가니스탄 정부, 탈레반 지도자인 만수르가 지휘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과 말다툼을 하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탈레반 부인 • 터키 이스탄불의 바이람파샤 전철역서 폭탄 테러...5명 부상 •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대선거에서 전직 총리인 로크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58) 후보 당선...27년간 장기독재 공파오레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민중봉기로 퇴진 • 브라질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공포 전국으로 확산...311개 도시서 의심 사례 1천248건 보고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아내 프리실라 찬, 45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페이스북 지분 99% 기부 약속...“딸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다음 세대 위한 도덕적 의무”

■ 12월 2일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서 총기난사로 14명 사망...6일 美 FBI, '자생테러'로 잠정 결론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방문...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총 65억 달러(7조6천억원) 상당의 대규모 계약 체결 • 아프리카 다국적군, 나이지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대원 약 100명을 사살하고 인질 900명 구출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러시아 스파이라고 지목한 남성을 참수하는 동영상 온라인에 공개 •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 북쪽에 있는 모모통보 화산, 110년 만에 폭발...수천 명 대피 • 인도 남부 타밀 나두 주 첸나이에 114년 만의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하루 강수량 345mm 기록

■ 12월 3일

• 영국 하원, 시리아 IS 공습안 가결...영국 공군 시리아 공습 시작 • 미국 법무부, FIFA 전·현직 관리 16명 기소 • 유럽중앙은행(ECB), 예금금리를 현행 -0.20%에서 -0.30%로 0.10%포인트 추가 인하...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동결하고 채권 매입프로그램을 2017년 3월 이후까지로 연장 • 이탈리아 해

군,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 약 2천 명 구조 • '무류사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를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소모코키의 모임'이라는 우익단체 차량 12대에 10분간 포위당해 • 미국, 특수부대인 레인저·그린베레(특전단)·네이비실을 포함한 미군의 모든 전투병과 여성에게 개방 • 구글, 세계 기업사상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구매...데이터 센터 가동용으로 842 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추가로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 체결 • 페이스북, 일반인도 영상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영상·사진 섞어 게시하는 기능도 추가

■ 12월 4일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 • 영국, 시리아 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두 번째 공습 단행...원유시설 또 공습 • 미국·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상대 합동작전 실시...40명에 달하는 아프간 치안요원 구출 • 아제르바이잔 인근 카스피해 해상 유전 플랫폼에서 화재 발생...30여 명 사망

■ 12월 5일

•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 탈레반, '생존 만수르 육성'이라고 주장하며 음성파일 공개 • 방글라데시 힌두 사원에 사제폭탄 공격...10명 부상 • 영국 런던 지하철역에서 괴한이 승객들에게 흉기 휘둘러 3명 부상...영국 경찰 "범행 동기는 영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 영국 북서부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치면서 대규모 홍수 발생...1명 사망·1천여 명 대피

■ 12월 6일

• '경제파탄' 베네수엘라 좌파 집권당, 16년 만에 총선에서 야권에 참패...야권연대가 99석·여당은 46석에 그쳐 •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반난민 극우당 역대 최대 득표율로 1위 • 미국,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근거지 공격...최소 32명 사망 • 예멘 남부 아덴 주 자파르 모하마드 사드 주지사와 경호원 6명, 출근길에 폭탄 테러로 숨져...IS "우리 소행" • 중국 무인기, 이라크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공습에 첫 투입

■ 12월 7일

• 중국 베이징서 사상 첫 스모그 최고단계 적색경보 발령...자동차 출퇴근 운행·휴교령 •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동부에서 규모 7.2의 강진 발생 • 독일발 이집트행 여객기 폭발위협에 헝가리 비상착륙...경찰 조사 결과 폭발물 발견 안 돼

■ 12월 8일

• 중국 최악의 스모그로 산시성 고속도로에서 33중 연쇄추돌 사고 발생...10명 사상

■ 12월 9일

• 미국서 체외수정 시험관 강아지 첫 탄생...코넬대 연구팀 성과

■ 12월 10일

• 우파 야당 출신 마우리시오 마크리(56), 아르헨티나 대통령 공식 취임...4년 임기 시작

■ 12월 11일

• 미국 듀폰·다우케미컬 합병...세계 1위 화학기업 탄생 • 중국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체 바이두, 베이징 시내 도로에서 무인차 주행 성공

■ 12월 12일

• 사우디아라비아, 사상 처음으로 여성 유권자와 후보가 참여한 지방 의회 선거 실시...사우디 건국 83년 만에 첫 여성 선출직 탄생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홍콩의 유력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20억6천60만 홍콩 달러(약 3천157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

■ 12월 13일

•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세계 195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파리협정' 채택...“온도상승 2℃보다 훨씬 작게 유지” 합의 •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 중국, 차세대 다윈두 대륙간탄도미사일(CBM) '동풍(東風)-41' 시험발사...3년 사이 5번째

■ 12월 14일

• 파리 외곽서 IS 언급한 남성이 교사 공격 • 중국 베이징, 스모그 재현...황색경보 발령 • 제27호 태풍 '멜로르' 필리핀 강타...4명 사망·수백만 명 정전 피해 •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 만에 최저 • 두바이유 배럴당 34.64달러...2005년 이후 최저

■ 12월 15일

• 이란 13년 만에 핵무기개발 의혹 일단락...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사찰 보고서 승인 • 미국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자국산 원유수출 금지 조치를 40년 만에 해제한다는 데 합의

■ 12월 16일

• 미국,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p 인상...7년 '제로 금리 시대' 마감 •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 • 미국, 대만에 18억3천만 달러(약 2조1천539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중국 반발 • 미국·일본, 주일 미군 분담금 합의...5년간 9천 465억 엔

■ 12월 17일

•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결의 • 중국·러시아, 베이징에서 총리 회담을 갖고 에너지·금융 등 30여 개 분야의 계약 및 협정 체결 • 일본·인도네시아,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 위해 첫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 • 리비아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양대 군벌, 단일 정부 수립 협정 합의...국제사회, IS가 리비아를 장악할 것을 우려해 중재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값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월 인도분 금값, 전날보다 2.5% 하락한 온스당 1,049.60에 마감 • 브렌트유 2004년 후 11년 만에 최저...37달러대 추락

■ 12월 18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자금줄 차단과 시리아 평화 정착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일본, 금융완화 강화책 발표...위험자산 매입·장기국채 규모 확대

■ 12월 19일

• 인도네시아 솔라웨이 섬 남동부 콜라카에서 여객선 침몰로 80명 실종...39명 구조 • 중국 베이징 또 스모그 적색경보...

“19~22일 외출 자제” • 이라크에서 43년 만에 미인대회 열려...수영복 심사는 안 해

■ 12월 20일

•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미스 유니버시티대회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1명 사망·수십 명 부상 • 중국 남부 선전공단에서 산사태로 건물 22채 매몰...실종자 9명·23일 첫 생존자 구출 • 고대 이집트 소년왕 투탕카멘의 유모로 알려진 '마이아'의 무덤이 발견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 '유럽 챔피언' FC바르셀로나(스페인), 일본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남미 챔피언' 리버 플레이트(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통산 3번째 우승

■ 12월 21일

•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 제프 블라터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 대해 각각 8년간의 자격정지 처분 내려...“지위남용” •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북동쪽 칼리만탄에서 규모 6.0의 지진 발생...주택 여러 채 부서져 • 일본 도시바, 반도체·TV·백색가전 등 부문에서 1만 명의 인원 감축 구조개혁안 발표

■ 12월 22일

• 일본의 유명 여성 산악인 다니구치 게이(43), 일본 홋카이도 다이세쓰산을 등반하다 추락해 사망...세계 최고 산악인에게 주는 '황금피켈상'을 여성 최초로 받았던 인물

■ 12월 23일

• 애플, 삼성에 1억8천만 달러(2천100억원) 추가 청구...특허침해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

■ 12월 25일

•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 11년 만에 파키스탄 방문...“포괄적 대화 시작”

■ 12월 28일

• 일본 도쿄지검,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 국민 전 모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 • 이라크 정부군, 안바르 주(州)의 주도(州都) 라마디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공식 선언

■ 12월 29일

• 파키스탄 북서부 주민센터서 자폭 테러...최소 21명 사망 • 영국 중부 일대에서 홍수로 약 3천여 가구 침수 • 중국, 충칭 지역에서 대형 세일가전전 개발 성공...미국 이어 2번째 상업 생산

■ 12월 30일

• 중국 선전시에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사망자 또 발생...총 4명째

■ 12월 31일

•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뤄진 아세안 공동체 공식 출범...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국 참여 • 독일 쾰른 중앙역 광장서 열린 연말연시 축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남성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신고 최소 90건 이상 접수 • '언포게터블' 흑인 여가수 내털리 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시터 시나이 병원에서 질병으로 사망...향년 65세